

〈참고 4〉

가격격차(상대가격) 결정요인

(1) 비교역재

– 국내 비교역재 산업 i 의 생산물 가격: $p_i^{NT} = w_i - z_i$

여기서 w_i 는 명목임금, z_i 는 노동생산성을 나타냄

(모든 소문자는 로그변수로 변환, $p_i^{NT} = \log(P_i^{NT}) = \log(W_i/Z_i)$, 대문자 level 변수)

– 해외(Rest of the World) 비교역재 산업 i 의 생산물 가격(해외가격): $p_i^{NT*} = w_i^* - z_i^*$

여기서 w_i^* 는 해외의 임금수준, z_i^* 는 노동생산성을 나타냄

– 비교역재의 가격격차(상대가격)은

$$p_i^{NT} - (p_i^{NT*} + e) = w_i - z_i - (w_i^* - z_i^* + e)$$

여기서 e 는 명목환율을 나타냄(해외가격을 환율을 반영하여 국내가격으로 표시)

⇒ 비교역재의 상대가격은 생산성에 대비한 국내 상대임금이 해외의 상대임금(해외생산성 대비)에 비해 높을수록 더 높다. 즉,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혹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상대가격이 높다.

(2) 교역재

– 국내와 해외의 교역재 산업 i 의 생산물의 가격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⁵⁰:

$$p_i^T = s^D p_i^{T,D} + s^M p_i^{T,M}, p_i^{T*} = s^D p_i^{T,D*} + s^M p_i^{T,M*}$$

Cobb-Douglas 선호를 가정함. 여기서 s^D 는 국산제품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, s^M 은 수입 제품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임. 위 식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가격은 $p_i^T = w_i - z_i$, 수입제품의 가격은 $p_i^{T,M*} = w_i^* - z_i^* + e + \tau$ 이며, 해외의 교역재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정의할 수 있음. τ 는 관세와 같은 거래장벽과 운송비 등 교역비용을 반영하는 변수.

– 교역재의 가격격차(상대가격)은

$$p_i^T - (p_i^{T*} + e) = (s^D - s^M)[w_i - z_i - (w_i^* - z_i^* + e)] + s^M(\tau - \tau^*)$$

⇒ 교역재의 상대가격은 먼저 국가간 상대임금의 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, 국내의 생산성 대비 상대임금이 높을수록, 혹은 상대 생산성이 낮을수록 교역재의 상대가격은 높아진다. 이처럼 생산요소의 상대비용이 상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대비 국내재화의 시장점유율($s^D - s^M$)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. 즉, 수입품의 비중이 올라갈 경우 상대가격 격차는 어느 정도 줄어든다.

다음으로, 관세 및 수입 물류와 유통비용이 높을수록 상대가격은 높아지며, 이러한 효과는 수입품의 비중(s^M)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.

50) 수입제품의 가격이 국내제품 대비 저렴할 경우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수입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래장벽(무역장벽, 수송·저장·정보 비용 등), 가격차별, 소비자의 선호 등으로 일정 비중만이 수입되는 현실을 반영